

가로환경조성사업의 공공시설디자인 현황 연구

서울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of Public Facilities Design in
Street Environment Creation Projects

Focusing o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n Seoul

주 저 자 : 엄기준 (Um, Gi Jun)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공동 저 자 : 김민정 (Kim, Min Jung)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교신 저 자 : 김민정 (Kim, Min Jung)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mjganda@naver.com

Abstract

Public design has improved a lot in a short period of time since its introduction. Many positive results have been achieved through public design, and many research and projects are still underway. In particula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conducting a street environment development project along with the housing reconstruction development project, and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 facilities design of the street environment development project through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roject. A total of eight projects were analyzed on the aspects of public design and universal design, and the results showed that sidewalk, fence, manhole, arboretum, ballads and streetlights were the main facilities, and most of them followed the proposal well, but some non-compliance was also found. It is believed that such inspections and analyses will provide the basis for efficient policy-making,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Keyword

Public design, universal design, street environment development

요약

공공디자인은 도입된 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발전을 했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으며, 많은 연구와 사업들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주택 재건축 개발 사업과 함께 가로환경 조성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가로환경조성사업의 공공시설디자인에 대해 점검해 본다. 총 8개의 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보도, 펜스, 맨홀, 수목보호대, 블라드, 가로등 등이 주된 시설로 나타났고, 대부분 제안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미 준수 사항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 입법, 사업 시행 등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여겨진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와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공공디자인과 시설
- 2-2.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3. 가로환경조성사업 기초 분석

- 3-1. 기초 현황
- 3-2. 가로환경조성사업 현황 소결

4. 가로환경조성사업 시설 현황 분석

- 4-1. A사업의 시공 현황
- 4-2. B사업의 시공 현황
- 4-3. C사업의 시공 현황
- 4-4. D사업의 시공 현황
- 4-5. E사업의 시공 현황
- 4-6. F사업의 시공 현황
- 4-7. G사업의 시공 현황
- 4-8. H사업의 시공 현황
- 4-9. 분석 소결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들어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여러 관련 사업들이 급격히 늘게 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리 정비 및 거리개선 사업의 이름으로 다양한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 및 각종 법률 마련이 이뤄지면서, 나름의 성과를 얻어 나가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평하다와 ‘한 가지’라는 뜻을 지닌 ‘공공(公共)’은 그 의미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함께 한다는 전제 아래 ‘디자인’이 가미됨으로써,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적인 영역과 장소, 시설물 등을 보다 여러 사람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꾸미는 일을 의미 한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은 정부 및 각종 민간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케이스로 이어질 경우 지역의 발전과 정체성 확립은 물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초 부가가치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낙후되거나 정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다. 길지 않은 공공디자인의 역사 속에 최근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책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조례, 법률, 시행령,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각, 보편화 되어 각종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00년대 후반, 건축 분야의 활성화에 따라 많은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었고, 시간이 흘러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시행되는 주기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 내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로환경조성사업의 공공시설디자인에 대해 그 현황을 점검해 봄으로써, 향후 다른 사업의 시행과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는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가로환경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조적 성격의 연구일 뿐만 아니라 가로환경조성사업 본연의 기능적 역할 외에 공공성측면의 디자인, 유니버설 측면의 디자인 요소들에 대해 점검을 해 보고, 아울러 관련 가이드라인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연계되어 발생하는 가로환경조성사업에 대해 주된 대상으로 삼으며, 특히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심의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까지 시공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로환경조성사업 심의 대상을 수집하고, 이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시공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사업의 명칭, 범위, 기간, 내용 등의 기초현황 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본 연구의 핵심내용은 심의결과의 현장 적용 분석,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의 연계성 분석 등을 중심으로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디자인과 시설물

[표 1] 공공디자인 분류

구분	내용		
공공 공간 디자인	야외 공간	공원, 운동장, 묘지, 공공 기관 부속 용지	
	행정 공간	공공 안내소, 마을회관, 파출소, 소방서	
	문화/복지공간	시민회관, 역사 공간,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역사 시설공간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 터미널, 철도 역사	
공공 시설 디자인	교육/연구공간	국공립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통 시설	도로, 터널, 철로, 고가도로, 교량, 보행신호등	
	편의 시설	벤치, 의자, 옥외용 테이블, 휴지통, 음수대	
공공 상품 디자인	공급 시설	하수처리장, 상하수도 시설, 맨홀, 발전소	
	공공 정보 디자인	지시 유도	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가구
	광고 홍보	지시 유도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광고 홍보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공공 환경 매체 디자인	행정	각종 증명서, 공문서 서식	
	상징	국가상징사인,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	
공공 환경 매체 디자인	오감, 연출매체, 아간조명계획, 음향연출계획		

공공디자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편이지만, 대체로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 편이며, 대체로 [표 1]1)에서 보듯이 공공공간디자인, 공공시설디자인, 공공용품디자인, 공공정보디자인, 공공환경매체디자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로 인용될 분야는 공공

1) 박은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 공공디자인학연구 1권 1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2006, p96

시설 디자인으로써, 교통 시설과 편의 시설, 공급 시설로 나뉘어진다. 교통 시설은 도로, 터널, 철로, 고가도로, 교량, 보행신호등을 나타내고, 편의 시설은 벤치, 의자, 옥외용 테이블, 휴지통, 음수대, 공급 시설은 하수처리장, 상하수도 시설, 맨홀, 발전소 등으로, 이들 가운데, 주로 도로, 벤치, 의자, 옥외용 테이블, 맨홀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2-2.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신체가 불편한 사람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공간, 제품, 서비스 등을 의미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공공 공간이나 환경, 시설물의 경우에는 더욱 유니버설 측면의 고려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발표하 바 있으며,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목표에 따르면,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모델개발 등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서울시 각 부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시 사업에 적용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서울시의 각 사업에서 적용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표 2]는 그 적용범위를 인용한 것이다.

[표 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부문	영역	세부항목
가로	보도	보행안전구역, 차량진입구역, 대지 안의 공지, 자전거 도로, 시설물 구역
	차도	국지도로, 횡단보도, 속도저감 방안
공원, 광장		진입 공간, 이동 공간, 위생 공간, 편의 공간, 휴게 공간
	접근공간	대지 출입구, 보행접근로, 주차장
	진입공간	주출입구, 로비
	이동공간	복도, 실내출입문,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방재 및 피난시설
	위생공간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수유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가이드라인의 주요 적용범위를 보면 크게 가로, 공원 및 광장, 공공건축물의 3개 부문으로 나뉘며, 그 안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2018, p1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2017

에 7개 영역과 29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3개 부문 가운데, 가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되며, 가로 부문에는 보도와 차도의 2개 영역, 세부항목으로는 보행안전구역, 차량진입구역, 대지 안의 공지, 자전거도로, 시설물 구역, 국지도로, 횡단보도, 속도저감 방안 등이 해당되며,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의 가로환경조성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3. 가로환경조성사업 기초분석

3-1. 기초 현황

2018년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들 중 주택재개발경비사업 일환으로 보도 및 가로 시설물 등의 가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2019년 11월 까지 완공된 사례들을 대상으로 가로환경조성사업의 공공시설디자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총 8개의 사업에 대한 기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A사업의 기초 현황

구분	내용
사업명	00구역 주택재개발경비사업(보도 및 가로시설물)
사업내용	보도포장, 자전거도로, 가로시설물(가로등, 자전거도로용 펜스, 맨홀, 가로수보호덮개, 블라드), 방음벽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심의내용	-보행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단지 내에도 보도와 동일한 패턴디자인을 적용. -A구간 사괴석포장(0.5m)을 적용. B, C, D, E구간은 띠녹지(1m)를 조성. 단, 비교1안의 사괴석은 간격을 최소화 등. (이하 생략)

[표 4] B사업의 기초 현황

구분	내용
사업명	00구역 주택재건축 경비사업
사업내용	보도, 자전거도로, 가로시설물(가로등, 분전함, 블라드, 펜스, 맨홀, 수목보호대), 방음벽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심의내용	저소음포장, 방음림(수목식재) 등 다른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적용하여 방음벽의 규모를 최소화.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2017, p11

[표 5] C사업의 기초 현황

구분	내용
사업명	0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보도 및 가로시설물)
사업내용	보도포장, 자전거도로, 가로시설물(가로등, 분전함, 볼라드, 펜스, 수목보호대, 맨홀)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심의내용	-보도블록 300mm X 300mm의 규격을 적용. -보행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단지 내에도 보도와 동일한 패턴디자인을 적용. -A구간 사괴석포장(0.5m)을 적용. B, C, D, E구간은 띠늪지(1m)를 조성. 단, 비교1안의 사괴석은 간격을 최소화 등. (이하 생략)

[표 6] D사업의 기초 현황

구분	내용
사업명	00주택재개발정비 기반시설 공사
사업내용	보도, 가로시설물(가로등, 분전함, 볼라드, 펜스, 수목보호대, 맨홀)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심의내용	-보도블록은 300mm X 300mm의 규격을 적용. -보도패턴은 기와진회색의 포인트블록의 수를 기본블록의 10%내외로 조정하여 계획.

[표 7] E사업의 기초 현황

구분	내용
사업명	0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내용	보도, 가로시설물(가로등, 맨홀, 가로수, 가로수보호덮개)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심의내용	-보도포장은 대안을 적용하되, 포인트 블록은 하나의 색상으로 적용. -가로등, 분전함, 맨홀은 제시된 선정안을 적용. -좁은 보도구간에는 가로수보호덮개 설치를 지양하고 띠늪지를 조성하여 보도 유효폭을 2m 이상 확보.

[표 8] F사업의 기초 현황

구분	내용
사업명	00주택재건축 정비사업(도로 및 가로시설물)
사업내용	보도, 가로시설물(가로등, 지하철 환기구, 가로수, 버스풀사인, 보행자 펜스, 가로수보호덮개, 가로등전원반, 볼라드, 맨홀(보/차도), 빗물받이,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심의내용	-보도블록은 비교1안을 적용하되, 포인트 블록의 색상은 한 가지로 적용.(포인트 블록의 수는 기본블록의 10% 내외로 적용)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점자블록 설치에 대한 상세계획을 제시. -좁은 보도구간에는 가로수보호덮개 설치를 지양. -띠늪지를 조성하여 보도 유효폭을 2m 이상 확보 등.(이하 생략)

[표 9] G사업의 기초 현황

구분	내용
사업명	00주택재건축정비 사업 경비 기반시설공사
사업내용	보도, 가로시설물(가로등, 분전함, 볼라드, 펜스, 맨홀)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심의내용	-보도블록은 300mm X 300mm 규격을 적용. -보도패턴은 주변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와진회색 보도블록의 수량을 조절하여 적용.(보도폭이 좁은 구간은 도트형 패턴을 줄여서 계획) -볼라드는 인증유효제품을 적용.

[표 10] H사업의 기초 현황

구분	내용
사업명	00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가로환경조성사업
사업내용	보도, 가로시설물(가로등, 가로수보호덮개, 볼라드, 맨홀덮개, 펜스)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심의내용	-보도패턴은 비교1안을 적용.(유지관리를 위하여 친환경 투수블록 등 1등급 제품 적용 권장) -유효보도폭 2m를 확보할 수 있도록 3.5m 미만의 보도구간은 가로수 식재를 지양. -분전함은 별도의 독립형 제품으로 설치.(가로등 통합형 제품 설치 지양) (이하 생략)

3-2. 가로환경조성사업 현황 소결

가로환경조성사업 관련하여 2018년 이후 심의된 대상들 중 시공이 완료된 8개의 사업에 대한 기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심의 의결 내용에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2차 이상의 심의를 받은 대상도 있으나 대부분 조건부동의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주택재개발, 혹은 주택재건축의 이름하에 재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일환으로, 기반시설공사, 혹은 가로환경정비사업의 명칭으로 가로환경조성사업이 시행되며, 공통적으로 보도와 가로시설물을 중점사업으로 시공하였고, 가로시설물에는 대부분 가로등, 분전함, 볼라드, 펜스, 수목보호대, 맨홀 등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 외에 사업에 특성에 따라, 가로수, 지하철 환기구, 버스풀 사인, 빗물받이, 버스 쉼터, 방음벽 등이 추가로 시공되었다.

4. 가로환경조성사업 시설 현황 분석

서울시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가로환경조성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통합 가이드라인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등을 토대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이며, 이들을 감싸고 있는 외부 가로환경에 대해 각 시설에 대한 사업이 주를 이룬다. 보도와 차도의 도로를 기본으로 하여, 블라드, 가로등, 펜스 등의 가로시설물이 가로환경조성사업의 각 분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며, 8개 사업의 현황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현황 분석 지표

구분	내용
심층 분석 지표	- 심의 결과 및 심의 내용에 따른 준수 사항 분석 -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의 준수 사항 분석
주요 대상	가로등, 분전함, 가로수보호덮개, 맨홀, 보도포장, 펜스, 블라드, 쉼터, 빗물받이, 지하철 환기구, 횡단보도, 점자블록, 버스 폴 등

4-1. A사업의 현황 분석

[표 12] A사업의 시공 현황

구분	내용
보도포장	(준수) -300mm X 300mm 규격 준수 -C구역 띠늑지 조성 (미준수) -보도와 단지 내 보도의 동일한 패턴 미적용 -A구역은 가로수 삭제 -B구역은 사괴석포장 -자전거보도폭의 협소함(1.28m) -D,E,F구역 사괴석포장 및 가로수 삭제 -사괴석 간격 최소화 필요
	

가로등	기준안 준수
펜스	기준안 준수
맨홀	(미준수) - 일부 맨홀만 기준안 준수 - 다양한 맨홀의 형태 시공
보호덮개	(미준수) - 띠늑지 미설치 및 가로수보호덮개 시공 - 수목보호판과 토심표면과의 여유 공간 미확보 - 기준안과 다른 패턴의 가로수보호덮개
블라드	(준수) -블라드 점자블록 뒤 설치 -기준안 설치 (미준수) - 블라드 보호 덮개 시공(유니버설디자인 규정 미준수) - 블라드 간격 미준수(1.28m)
	
방음벽	(준수) 목재에 적용된 장식 요소 삭제 (미준수) 3.5m 높이 미준수
점, 선형 블록 및 턱날	(준수) 유니버설디자인 규정 준수

4-2. B사업의 현황 분석

[표 13] B사업의 시공 현황

구분	내용
도로	(준수) 300X300 사이즈 돌담회색 및 기와진회색 시공 *기타:내리막 도로에서의 미끄럼 방지 패턴 적용
턱낮춤	(준수) -고원식 횡단보도 시공(턱 낮춤 및 차도 높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에 따른 점자 블럭 시공
가로등	(준수) 서울시인증 디자인 제품 적용
분전함	-기준시공예정위치에 미적용 -분전함과 가로등 통합형 적용
블라드	(준수) 계획된 제품과 동일 (미준수) 고정형
펜스	(준수) 계획된 제품과 동일
맨홀	(준수) 계획된 제품과 동일
보호대	(미준수) -다른 제품 시공 -지표면과 보호대가 맞닿아 있음
	
방음벽	(준수) 계획된 제품과 동일

4-3. C사업의 현황 분석

[표 14] C사업의 시공 현황

구분	내용
보도 포장	(준수) - 300mm X 300mm 규격 준수 - 규정에 따른 띠늑지 조성
가로등, 자전거 펜스	(미준수) - 단지와 다른 패턴 적용 - B구역의 띠늑지 미 조성
맨홀, 가로수 보호 덮개, 볼라드	(준수) 기준안 준수  (미준수) - 수목보호판과 토심표면과의 여유공간 미확보 - 맨홀 기준안 일부 미준수 - 볼라드 미시공(시공중)

4-4. D사업의 현황 분석

[표 15] D사업의 시공 현황

구분	내용
보도 블록	(준수) - 보도블록 300mm X 300mm 규격 적용 - 기외진회색의 포인트 블록의 수를 기본블록의 10%내외로 적용 
고원식 교차로	(준수) 주변보다 교차로 높게 포장 (미준수) 일부 구간 도색 미적용
턱낮춤	(준수) 원안 적용
가로등	(준수) 원안 적용

볼라드	(미준수) - 일부 구간 맨홀과의 교차로 인해 볼라드 미적용 - 일부 원안과 다른 하안색 띠 패턴 - 고정형 볼라드 
펜스	(준수) 원안 적용 
보호대	(미준수) 전구간 띠늑지 시공 

4-5. E사업의 현황 분석

[표 16] E사업의 시공 현황

구분	내용
조명	(준수) 계획안의 대안 1 준수
분전반	(미준수) - 정해진 위치 외에 다른 곳에 설치 - 대안과 같은 지면 밀착형이 아님 - 분전함 외에 다양한 전기 시설물(교통 등)의 무게 획적 혼재
맨홀	(미준수) 대부분의 맨홀 덮개가 선정안을 따르지 않고 시공됨 
보로포장	(미준수) - 보도폭 2~3m 미만의 횡단보도 보도 폭 턱낮춤 미적용(횡단보도 진입부의 대기평탄면 미적용) -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에 따른 횡단보도 진입부 미시공 

보호덮개	(미준수)-계획안의 지정된 장소에 보호덮개 미시공 (심의안은 좁은 보도에서의 보호덮개의 지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3m이상의 도로에서까지 보호덮개를 지양하고 띠녹지를 활용하라는 의미는 아님)
	
블라드 외	(미준수)-횡단보도 진입로의 점자블록과 블라드 위치의 일관성 결여 -다양한 블라드의 혼재 -임시시설물(주차허용 시작지점 시설물) 등의 난립 -보도 유지 보수 및 점자블록 등의 부분 미시공
	

4-6. F사업의 현황 분석

[표 17] F사업의 시공 현황

구분	내용
보도블럭	(준수)300X300 보도블럭 준수. 포인트 블록 한 가지 외 10% 내외 적용
가로등	(준수) 1안 시공
버스 폴	(미준수) 미설치
펜스	(준수) 1안 시공
가로수보호덮개	(준수)보호덮개와 지면과의 표차 시공 (미준수)-다른 패턴의 시공 -좁은보도 구간에서의 띠녹지 미 시공
	
전원반 블라드	(준수) 1안 시공 (미준수)- 다른 블라드 디자인 - 고정형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 미준수 - 기존 가로시설물 계획 미준수
	
보도맨홀	(준수)일부 준수 (미준수)보로 포장재와 동일한 색상 미적용
빗물받이	(미준수)미설치
지하철환기구	(준수) 기존안 시공

4-7. G사업의 현황 분석

[표 18] G사업의 시공 현황

구분	내용
도로패턴(보행자도로)	(준수) -300mm x 300mm 규격 적용 -기와진회색 보도블록의 수량을 조절하여 적용 -보도폭이 좁은 구간은 도트형 패턴을 줄여서 적용
턱낮춤	(준수)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 준수
가로등	(준수) 원안 시공
블라드	(미준수) -39개 블라드 미시공
펜스	(준수) (미준수)원안과 다른 시공
	
맨홀	(준수) 원안 시공

4-8. H사업의 현황 분석

[표 19] H사업의 시공 현황

구분	내용
보도포장	(준수) 유효보도폭 2m 확보 (미준수) 비교1안(300X300인조화강석)이 아닌 200X200 사이즈 시공
	
횡단보도, 점자블럭	(준수) 보도 턱낮춤 및 점,선형 블록 적용
가로등	(준수)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 시공
보호덮개	(준수) 원안 시공
	
펜스	(준수) 어린이 공원 측 보도구간 보행자용 휨스 추가 설치 시공 (미준수)원안과 다른 제품 시공
	

4-9. 분석 소결

심층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서울시 심의 결과 및 심의 내용에 따른 준수 사항 분석을 우선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고, 아울러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의 준수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주된 시설물 등의 대상은 주로, 가로등, 분전함, 가로수보호덮개, 맨홀, 보도포장, 펜스, 블라드, 쉼터, 빗물받이, 지하철 환기구, 횡단보도, 점자블록, 버스 폴 등이었고, 주요 결과를 보면, 대체로 기존 사업 내용 및 심의 내용에 따라 시공된 경우가 많긴 하였으나 일부 사업 대상지나 시설물의 경우, 유니버설 측면에서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았다. 주로, 펜스, 블라드, 가로수 보호 덮개 등의 경우, 제안내용에 있는 제품이나 디자인과 같지 않거나 유사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원식 교차로나 횡단보도의 보도 블록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좀 더 세밀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한 곳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로, 중로, 대로의 구분에 따라 보도와 자전거 도로, 띠 녹지의 간격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 자전거 보도의 경우, 갑자기 도로가 끊기거나 연속성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블라드의 경우, 제안 내용에서는 대부분 고정형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고정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블라드의 간격이나 위치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후화된 지역이나 아파트 등의 주택에 대한 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연계되어 시행되는 가로환경조성사업에 대해 2018년도 심의 및 의결되고 2019년도 사업이 시공 완료된 사업에 대해 그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가로환경조성사업의 총 8개 대상에 대한 기초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도로와 가로시설물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심의 의결 내용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시설이나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심의하고 있다. 가로시설물의 경우, 가로등, 가로수 보호 덮개, 펜스, 맨홀, 분점함, 블라드가 주를 이루며, 이 외에 가로수, 지하철 환기구, 버스

폴 사인, 빗물받이, 버스 쉼터, 방음벽 등이 사업의 특정 목적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018년도 주요 심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을 나타내며, 이는 우선 보도 블록의 경우, 300X300의 사이즈를 지향하고, 보도의 넓이에 따라 띠 녹지를 사용토록 의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포인트 블록의 경우에도 과도한 사용을 지양하여, 깔끔한 거리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가로수 보호 덮개의 경우, 수목보호판과 토심표면과의 여유 공간에 대한 지향성이 보이고, 각 시설물에 대해 서울시 인준한 우수 디자인 제품의 사용을 권장함을 알 수 있었다. 본론인 가로환경조성사업의 8개 대상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각 사업별로 기존 사업 제안서의 내용대로 시공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공공디자인이 국내에 도입되고 알려진 후 초기에 거리개선 사업의 이름으로 다량의 사업이 시행되었고, 이후 많은 수정과 보완이 이뤄지면서 점차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조례와 시행령,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규정화 하여 공공디자인의 체계가 점차 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도시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기 위한 용도에서 벗어나 기능적, 심미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는 시작되었으며, 각종 제도과 정책을 통해 많은 사업이 시행될 때 다양한 의견과 견제, 심의, 협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공디자인이 실현되리라 여겨지며, 이는 나아가 도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되리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합리적인 시행도 중요하지만, 완료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점검을 통해 추후 시행될 사업이나 각종 정책 및 제안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1. 박은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 공공디자인학연구 1권 1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2006
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2018
3.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2017